

일양약품, 항궤양제 임상3상 완료

일양약품은 연구개발중인 차세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의 국내 임상3상 시험을 완료했다고 6월8일 발표했다.

임상결과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일양약품은 2001년 중국의 협력 제약기업인 립존에 선수금 250만달러를 받고 기술을 수출했으며, 립존은 최근 중국에서 임상3상 시험을 모두 마친 뒤 중국 의약품당국에 신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공식시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디아와 타이, 필리핀, 말레이, 싱가포르 등에서도 다국적 임상3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7/06/08>